

LG, 후반기 펄펄... “독수리 잡는다”

승률 8할... 10경기 중 5회 역전승 1위 한화와 2게임 차 바짝 추격 KIA전 재역전 드라마 후 신바람 불펜 약하면 불꽃타선 상호보완 다음 주말 한화 3연전 박매치 기대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후반기 10경기에서 8승(2패)을 거둬 다시 선두 싸움에 불을 당겼다.



전반기 한화 이글스에 4.5게임 차로 뒤져 2위로 마친 LG는 후반기에 힘을 내며 29일 기준 격차를 2게임으로 좁혔다.

한화가 후반기에 5승 1무 4패로 주춤하면서 두 팀의 격차가 줄었다.

후반기 시작을 앞두고 염경엽 LG 감독은 “올스타전에서 얻은 기운이 후반기에 우리 선수단에 퍼졌으면 좋겠다”며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도 우리 팀에서 나오길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염 감독은 올스타 브레이크로 얻은 휴식이 반격의 동력이 되길 바라며, 우승에 대한 열망을 ‘한국시리즈 MVP 배출’로 표현했다.

후반기 출발은 매우 좋다. 염 감독이 “우주의 기운이 조금씩 우리에게 들어오는 기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후반기 10경기에서 LG는 5번이나 역전승을 거뒀다. 특히 22일 광주 KIA 타이거즈전이 염 감독의 기억에 진하게 남았다.

당시 LG는 4-0으로 앞서다가 4-7로 역전당했다. 8회 말에 6점을 내줘 패색이 짙었다.

하지만 9회 초 1사 1·2루에서 박해민이 KIA 마무리 정해영을 공략해 동점 3점 홈런을 쳤다. 박해민의 시즌 3호 홈런이었다.

가사희생한 LG는 9회 초에만 5점을 얻어 9-7로 재역전승했다. 염 감독은 “박해민이 동점 3점 홈런을 칠 줄 누가 알았겠나”며 흐뭇하게 웃었다.

이후 LG는 신바람을 났다. 곳곳에서 긍정적인 신호도 보였다.

LG는 후반기에 ‘1점 차 경기 5승’ ‘2점 차 경기 1승’을 거뒀다.

불펜이 무너진 날에는 타선이 터졌고, 투



27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3회 초 투사 1·2루에서 LG 문보경이 3점 홈런을 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전이 벌어진 날에는 불펜이 잘 버텼다.

염 감독이 ‘후반기 초반 성적을 좌우할 변수로 꼽은 선발 투수진은 10경기 평균 자책점 3.15로 잘 던졌다.

기존 선발 중에는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만 2경기 평균자책점 6.00으로 부진했다. 염 감독은 “한화와의 맞대결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LG가 후반기 상승세를

이어가면 8월8~10일 잠실에서 열리는 두 팀의 주말 3연전은 올 KBO리그 후반기 최고 박매치가 될 수 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U-23 챔피언십 3연패 위업 김상식 매직, 베트남 흘렸다

A대표 미쓰비시컵·AFF 동반 우승 최초 사령탑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아세안축구연맹(AFF) 챔피언십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베트남은 29일 오후(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겔라라 봉 카르노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최국 인도네시아와의

베트남은 올해 1월 동남아시아 최대 축구 축제인 2024 미쓰비시일렉트릭컵에서 통산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U-23 AFF 챔피언십도 제패했다.

김상식 감독은 A대표팀이 참가하는 국가대항전 미쓰비시컵과 U-23 AFF 챔피언십 동반 우승을 이룬 최초의 사령탑으



AFF U-23 챔피언십 우승 후 김상식 감독을 행개라하는 베트남 선수들. AP=연합뉴스

2025 AFF U-23 챔피언십 결승에서 전반 37분 응우옌 쑹프엉의 결승 골 덕분에 1-0으로 이겼다.

이로써 베트남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3회 연속 대회 정상에 올랐다. 이 대회는 2005년 시작됐으며 베트남이 최다 우승국이다. 두 번 트로피를 들어 올린 나라도 베트남뿐이다.

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베트남 축구의 영웅인 박항서 전 감독도 못한 일이다.

김상식 감독은 K리그1 전북 현대 사령탑에서 물러난 뒤 1년 만인 지난해 5월 필리프 트루시에 후임으로 베트남 A대표팀 사령탑으로 취임했다. U-23 대표팀도 총괄하며, 계약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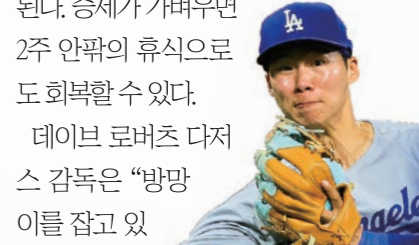
너무 세게 던졌나... 김혜성 어깨 부상 이탈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뛰는 김혜성(26살)이 부상으로 쉬어 간다.



니로, 그곳에 염증이 생기면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불편감과 통증을 느끼게 된다. 증세가 가벼우면 2주 안팎의 휴식으로 도 회복할 수 있다.

다저스 구단은 30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리는 신시내티 레즈전을 앞두고 김혜성을 10일짜리 부상자 명단(IL)에 올렸다.



정확한 부상 사유는 왼쪽 어깨 접액낭염이다. 접액낭은 어깨뼈와 힘줄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주머니

는 모습만 보더라도 지금 상태가 정상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In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슬개골과 고관절의 염증